

제 목	동행	촬영장소 (세부적으로)	신애 5호관 기숙사 뒤쪽 갈대밭
			
<p>[스토리]</p> <p>어느덧 기숙사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. 4년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짧게 느껴지는 건 그건 아마도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늘 알차고 즐겁게 느껴졌다는 거겠죠?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 들어 왔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네요. 하지만 비호생활관에서의 4 계절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친구와 컨셉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제가 자취를 하거나 통학을 했더라면 기숙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존재할 줄 몰랐겠죠? 저는 친구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계절별로 기숙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찍으러 다닙니다. 내년엔 졸업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함께 찍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렇게 저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신애5호관은 저에게 안전함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준 멋진 기숙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</p>			